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밤

1998

3

벌채 목록 : 어린이란



5월의 내 친구



앞표지 그림 :
 맬픽슨,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질 이삭과 함께 있음
 뒷표지 그림 :
 애플드 쿠퍼, 아브라함과 이삭, 프로비덴스 석판 인쇄소의 여력을 받아 게재함.
 어린이란 표지 그림 :
 클라크 켈리 프라이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 의해 성취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 14 응 캣 히트:홍콩의 개척자 켈리 리스 애덤스
- 16 현대의 새긴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 테니스 리지
- 24 교사를 위한 여섯가지 제언 케리 제인 후토
- 26 잊을 수 없는 친구 카신드라 린 차이
- 28 주님께 바치는 기도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수아레스

청소년란

- 10 "말씀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조셉 레이 지 브랄렌트스
- 30 질의 응답:만약 여러분이 교회 개척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 34 자신의 두 발로 리사 엠 그로비
- 40 아빠가 믿지 않으실 때 의명

정기 특별 기사

- 1 애독자 편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내 말을 연구하라
- 33 물문 메시지: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 42 질문이 있는데요: 창조의 기간; 고대 축복사의 수명; 바벨탑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물문경 이야기: 물문과 그의 가르침
- 4 할아버지의 기도 에일린 머피 알레드
- 6 심심풀이: 예언자를 따르라 팻 켈시 그레이엄
- 8 뉴스속의 친구들
- 10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시드니 레이놀즈
- 12 이야기: 독자가 읽어가는 이야기- 미로 로란 에스 쇼트리지
- 16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12쪽 참조



16쪽 참조



2쪽 참조



8쪽 참조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피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올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다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안: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헨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존 나이트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캘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아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의: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의 보조: 올 발 존슨
부편집의: 데이비드 마텔,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언 미턴데일
제작 보조: 베스 테일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시카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퍼
디자인: 캐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버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84호, 제 385호, 제 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2-3186
발행일: 1998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March, 1998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8983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의 경우 항공 우편료 1차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차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차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400원, 4차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3223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및 통가어
격월간: 덴마크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게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갈라타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좋은 언행

저는 1996년 9월호 리아호나(영어 판)에 실린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란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부터 우리 가족은 항상 좋은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면 행동도 신중해 집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란 기사를 표준으로 삼아 더욱 예의 바르게 말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یان 레이 브리코 페기안
필리핀 엘리샤 지방부
엘리샤 제2지부

힘과 격려

말일성도들이 표준을 지킨다는 것,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회원일 경우, 이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세이도 노 미찌*(일본어 판)를 읽음으로써 힘을 얻어 표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루 다가가
일본 나고야 서 스테이크
오가끼 지부

감사

저는 두 명의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하며 그리하여 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또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으면 저는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으며 힘들 때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만도 곤잘레스
칠레 아추팔라스 스테이크
고메즈 가레오 와드

긍정적인 메시지

어느 날 밤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집어 들고 읽고 싶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8월 내지 9월을 읽었는데 벌써 행복과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아호나를 읽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찾고자 하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생활에 유익이 되는 리아호나와 같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아멜리아 마르콘
베네수엘라 오쿠메르 델 투이 지방부
산타 테레사 지부



축복

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 십대 때 교회에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회원이 된 첫 10년 동안에는 테르 스테른(독어 판)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잡지가 제 일상 생활에 무슨 도움을 줄지, 또 제 영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 잡지를 읽고 이것이 제 남편과 제게 축복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간증과 시련들에 관한 기사를 읽음으로써 제 신앙은 강화되었으며 용기도 커졌습니다.

모레나 밀러
이태리 베니노 스테이크
블자노 지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신 앙개조 제1조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의 중추가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중요한 교리들을 공표하면서 이를 첫번 순위로 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조)

이 위대한 선언은 예언자가 공표한 다른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교회 정사, 6:305)

이 대단히 중요한 선언들은 주님의 위대한 중재 기도에서 하신 말씀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저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개조 제1조의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기적 중의 기적이요, 기이한 것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가 그분들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시는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분은 저의 아버지요 제 영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개체이시고 실재하시며, 하나의 독립체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교리와 성약 130:22)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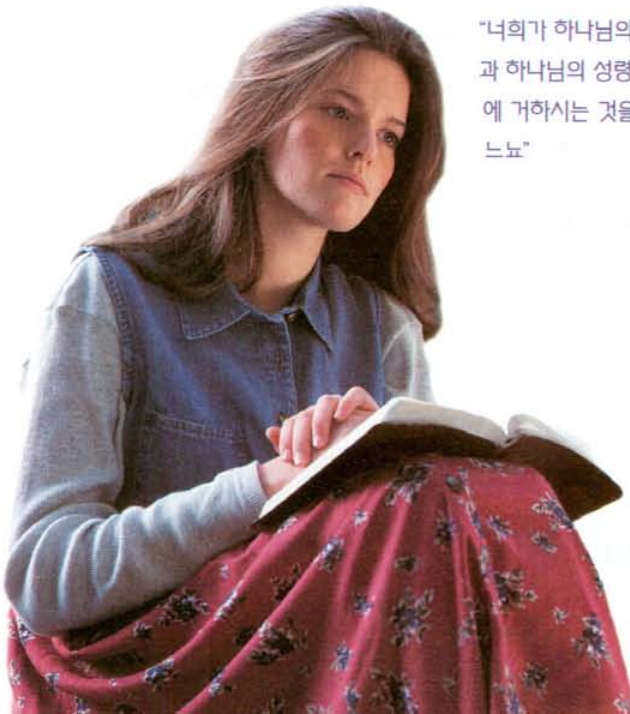
또 그분은 지구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26)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하나님은 육신을 지니심

50여 년 전 제가 선교사로서 런던 하이드 파크 공원의 야외 웅변 연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한 사람이 “당신은 왜 요한복음 4장 24절의 ‘하나님은 영’이라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요?”라고 야유하면서 제 말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그가 인용한 구절 전체를 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죠. 선생님은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존재가 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영체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의 실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이 독립된 개체로서 계속 존재하게 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거룩한 계획에 따라 영과 육이 재결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가 그분이 육신을 가졌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선포는 제가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위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육체와 제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영원하고 제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더욱더 존경합니다.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힘을 의지하며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크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의 능력은 자연의 힘보다 크시며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품는 사랑으로, 어떤 이의 사랑보다 더 큼니다. 모든 세대에 이르는 그분의 아들, 딸들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그것이 그분의 사업이요,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영광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요한복음 3:16)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경외하고 존경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두려워 떨며 바라보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예배드리며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면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으로써 나아와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자녀들에게 빛과 지식과 이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와 약속으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그분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분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고, 신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단 강에서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라고 선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변형의 산에서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과 천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와 유사하게 선포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마태복음 17:1~5)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서반구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라]"(니파이삼서 11:7)라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기도로 그분을 찾았던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스미서 2:17)라고 선포하신 뒤 모습을 보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저는 살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요, 육체를 가지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장엄한 말로 복음서를 시작한 요한의 선언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요한복음 1:1~2, 14)

저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다윗 가계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으며, 그분의 탄생은 위대한 이사의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저는 그분이 지상의 생애 중, 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빛과 진리를 우리가 준수한다면, 그 빛과 진리는 세상을 구하고 인류에게 승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권에 축복의 권세, 병고침의 권세, 지상의 제반 문제를 다스리는 권세,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림: 제임스 맥퀼스 조셉 티스트, 도사 진제가 마리아의 임부

저는 그분이 이 지상에 살았던 분으로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빛과 진리를 우리가 잘 간직한다면, 그 빛과 진리는 세상을 구하고 인류에게 승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저는 갈보리 언덕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속죄 희생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가 악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속죄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기념하는, 그분의 부활의 실재와 권세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을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아무런 값없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은사를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귀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 모든 남녀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영생과 승영의 기회가 펼쳐져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그만큼 위대한 자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희생에 필적할만한 희생을 치른 자가 없었으며 그러한 축복에 필적할만한 축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애매 모호한 말이나 유보 없이 그분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그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께 하듯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상처난 발과 손과 옆구리 앞에 무릎꿇으며 그분이 제게 주신 사랑에 놀랍니다.

오래 전에 우리들 각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확실히 한 개체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망에 잠긴 그분의 제자들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와

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요한복음 21:12~13)

경전은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신 자들과 살아 계실 때처럼 더불어 이야기하신 사람들에게 관해 전해 줍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나타나셨으며 그분을 본 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이분이 바로 제가 믿고 간증 드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구세주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인류, 즉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과 승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임

그 지식은 경전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간증은 성신의 권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이 계시해 주시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는 성신이 거룩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한 영역을 담당하는 영의 한 개체이며 이 세 분이 거룩한 신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신의 위치의 중요성은 주님의 다음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궤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궤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31~32)

고대에도 성신이 신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던 점은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와 아나니아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서 증명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사도행전 5:3~4)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으로 구세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구세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성신은 진리를 간증하는 분으로 인간이 서로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위대하고도 도전적인 말씀에서, 물몬경을 아는 지식은 “성신의 능력으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사서 10:4~5)

저는 이 권세, 이 은사를 믿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신회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실재하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결혼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성과 개별성에 관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개별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 받을 때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 분이 거룩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신이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마태복음 3:16~17 참조)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본 자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요한복음 14:9 참조) 아들이 부모를 닮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는 분명 그분 자신에게 기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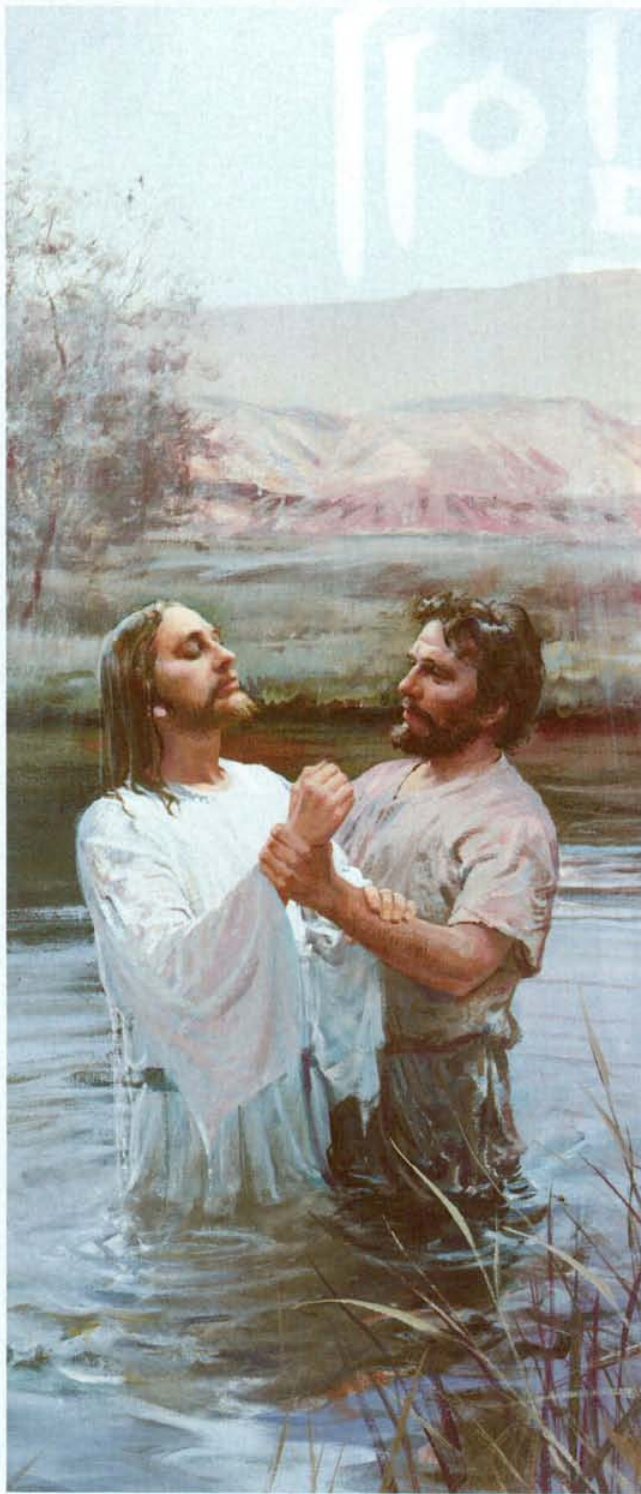
신회의 구성원들은 완전히 단합이 됨

그분들은 개체들이지만 목적과 일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장대하고 거룩한 계획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단합됩니다.

배반당하시기 전, 동산에서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기도에서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저는 이 권세, 이 은사를 믿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이분들의 실재성과 개별성에 관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개별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 받을 때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사도들에 관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드렸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한복음 17:20~21)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완전한 단합은 신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요, 기이한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가 그분들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시는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위대하고도 탁월한 진리에 대해 간증 드리거니와 이는 성신의 은사와 권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1:1)

2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영의 아버지시며, 위대한 창조주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실재하시며 독립체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교리와 성약 130:22)습니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장자이시며 육체를 가지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속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은 인류의 죄를 거두셨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4 성신은 신화의 세 번째 구성원으로서 영체로 계신 분이며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진리를 증거합니다.

5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각각 개체이지만 그 목적과 일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시는 본질입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마닐라의 열광적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힝클리 대관장님과 힝클리 자매님

1996년 5월 30일 오후에, 저는 가족과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닐라에 있는 아레네타 경기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방문 중인 그분을 보게 되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4시 30분에 경기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친구인 프린세스와 파울로, 여동생 헤이 헤이와 함께 입구에 줄을 섰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경기장 맨 끝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한 시간 반 동안 더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저녁 6시 경에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혼자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는 많이 읽어 봤으나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교회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악보 없이도 피아노로 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말 그 분에게 감사하고 있었던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이 예언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제 자신이 그 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분에 대한 간증을 갖기 위해서 그 분에 대해 알고 그 분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청중들이 일어 섰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이 도착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5분 가량 흐른 후,

우리는 그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분이 도착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우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연습한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을 때에도 그분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났을 때,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지만, 합창단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 분이 보였습니다. 그 분은 우리들 바로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대관장님의 앞으로는 손짓에 우리가 자리에 앉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연사는, 필리핀의 선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961년 4월에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이 이곳에서 첫 말씀을 하신 이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필리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헝클리 장로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하여 이 섬나라의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이 크고 영원한 선을 위해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데이트라인 필리핀, 탐블리, 1991년 4월호, 17쪽) 그 분이 옳았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35만 이상의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젊은이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며, 자비롭고, 유덕하고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신앙개조 1:13) 그 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 분은 독신성인들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찾아 이 생과 영원을 위한 성전 결혼을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자리에 함께 한 3만 5천 명과 일일이 포옹하고 악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사랑과 특별한 축복, 곧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그 분은 실제적인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사랑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같은 경험을 처음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제 마음속의 많은 의심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이 아닌, 진정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합창단이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찬송가 74장)을 부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을 위시한 일행들이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복도를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그 분에게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알게 됨으로써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게 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

응 캣 핑: 흥



응 형제는 처음 선교사들을 만났던 날의 심정을 아직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 자신이 좀더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의 개척자

켈렌 릭스 애담스

“**응** 형제님” 하고 어떤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켈루
응 (외국인)가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응 캣 힝의
주의를 끌었다. 짙은 색의 양복을 차려 입은 말끔한 미국인
일행이 그가 일하는 가구 가게로 들어 왔다. 그들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 25세의 홍콩 토착민은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지
만, 더욱 그의 관심을 끈 것은 “형제님”이라고 부른 그 호칭
이었다.

응 캣 힝이 그 호칭에 관해서 그들에게 질문한
다. 히튼 부장이라고 쓰인 명찰을 단 미
국인 한 명이 “형제님은 하늘에 한 아
버지가 계심을 믿습니까?”라고 물었다.

그가 머리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 말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형제지요. 그러
니 저는 형제님을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 형제는 그
미국인의 대답을 생생히 기억한다. “저
는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 회복된 복음
의 작은 부분이 제게 분명하게 드러났
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온 종일
경이로워했습니다. 4일 후 가구 주문을 확
인하기 위해서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전 좀더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남극동 선교부의 그랜트 히튼
선교부장은 1965년 8월에 단순히 티크 목재 가
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던 중이었지만, 응 캣
힝 형제에게서 더 많은 것을 찾게 되었다.
선교부장은 장래의 언어 교사이자 개종자
이자 선교사이며 교회 지도자, 즉 진정한

개척자를 찾은 것입니다.

“응 형제님과 그의 가족은 홍콩 지역의 교회에서 진정한
개척자들입니다.”라고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응 형제와 가까이에서 일했던 칠십인 명예 총관리 역원, 야
곱 디야거 장로는 말한다. 실제로 응 형제는 디야거 장로에
게 광동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뛰어난 경험과 지혜를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이것은 응 형제
님 부부가 대만 타이페이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시

는 동안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두 분
은 광동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많
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친화하는 것은 언제나
응 형제의 재능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
하려는 그의 태도가 선교사들과 더욱 가까
운 만남을 갖게 했다. 선교 본부를 위
한 가구 주문을 마친 후, 응 형제
님은 히튼 부장이 선교사들에게
광동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동의했다.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했
지만, 그중 아무도 도와줄 수 없
었다. 그래서 그는 가구 가게 일
을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선교사들
을 가르쳤다. 결혼하여, 네 어린 아이
의 아버지였던 응 형제님에게 일자리도
바뀌고 그와 더불어 봉급도 즐었다. 그러나

응 캣 힝과 그의 일곱 아이들 중 하나인 알렌.



그는 그것이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저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응 형제는 간단히 말한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번갈아가며 했다. 응 형제님은 기초 언어 학습을 가르쳤고, 선교사들은 복음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도자들에게 총 18개의 토론을 가르쳤기에, 응 형제가 모든 토론을 다 듣기까지 여러 선교사들을 거쳤다.

“시간이 꽤 걸렸지요. 하지만 제가 침례 받을 무렵에는 제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굳건한 기초와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응 형제는 말한다.

응 형제는 1956년 5월 31일에 침례 받았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홍콩에서 재개된 선교 사업에서 거둔 첫 개종자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응 형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리를 찾고 있었다.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개신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응 형제는 가끔 할머니를 따라가곤 했던 것이다. “저는 자라면서 배워왔던 신과는 다른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임에서 본 담임 목사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헌금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라고 응 형제는 말한다.

응 형제의 의문들은 선교사들을 만날 때까지 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분들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라고 그는 회고한다.

복음 덕분에 응 형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아내는 제가 교회를 다닌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심일조를 충실하게 바친 덕분에 재정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음식이나 집 문제

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안 뒤로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응 형제는 웃으면서 말한다.

복음으로 인해 남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본 후, 응 팡라이 하 자매 역시 이 복음을 공부했다. 선교사들은 자주 응 형제의 집을 방문하여, 응 형제에게 새로운 회원을 위한 복음 토론을 가르친 뒤, 그녀에게 18개의 토론 중 하나를 가르쳤다.

응 자매는 남편이 침례를 받은 뒤 꼭 열 달이 지난 후에 침례 받았다. 응 형제는 일곱 자녀 모두 여덟 살이 될 때마다 침례 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응 형제는 가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그의 까만 눈은 남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듯 반짝인다. 응 형제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자녀들 모두가 그와 부인에게 인봉된 것뿐만 아니라 일곱 자녀 모두가 성전에서 결혼한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모든 자녀와 한번에 인봉 받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도쿄나 미국의 성전으로 여행하는 것은 아주 비쌌습니다.” 몇 년간 저축한 후, 응 형제와 자매는 1974년 프 로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뒤이은 성전 방문을 통해 이 부부의 성전 사업에 대한 헌신과 약속이 강화되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그들은 대만 타이페이 성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1996년 5월에 헌납된 홍콩 성전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부름 받음으로써 그들의 성전 봉사는 절정을 이루었다.

“제 아내와 저는 성전 발표에 감격했습니다. 저희는 성전 봉사자가 되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하기로 계획했지요. 저희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응 성전장은 말한다.

“처음에는 그 부름이 두려웠고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끝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



40여 년 전 침례를 받은 응 형제와 자매는 현재 홍콩 성전에서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 영적인 힘과 인도를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응 성전장의 교회 봉사는 사실 침례 전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자료를 번역하는 일도 도왔고, 침례 받은 뒤에는 지부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침례 받은 이래로, 지부장이며, 지방부장,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축복사, 선교부장의 보좌와 지역 대표 등으로 봉사했다.

어떤 부름을 받든지 응 성전장은 쾌활한 위트와 사랑에 찬 온기를 불어 넣었다. 홍콩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이 지도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지요.” 라고 응 장로는 말한다. 경제 발전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물질주의가 팽배해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회원들은 매일같이 많은 도전을 맞는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냅니다. 이 복음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응 성전장은 말한다.

응 성전장과 자매는 그들의 집에 균형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충실하게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재정 자원의 현명한 사용과 가족의 일체감과 교회 활동을 강조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과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 부름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응 성전장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 선교 사업을 행하며,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과 온 땅의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앞으로써 발휘되는 우리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응 성전장은 간증한다.□



현대의 새긴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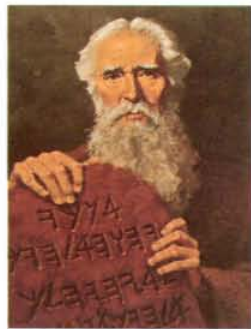


그림: 케리 헐리, *영양자 모세*

모세 시대 이래 우상의 형태는 변모되어 왔지만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께 충절을 보이는 기본 원리는 여전히 계명으로 되어 있다.

데니스 라지

제가 새로운 선교사로 아일랜드에 가기 전에 솔트레이크 선교부에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 제 방의 장로들은 제각기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

동차를 두고 오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선교사로 나오지 못할뻔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그 장로는 연기 냄새를 맡고 차고로 달려가 보았더니 자동차 엔진이 불에 타고 있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실은 그에게 우선 순위를 평가해 보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우리는 복음 생활이라는 “쟁기를 손에 잡고”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려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림: 테드 예닝거

라”(출애굽기 20:4)입니다. 이 계명은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에 맞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최초로 주신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직시해 보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는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것들을 비롯하여 무형의 “황금 송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출애굽기 32장 참조) 어떤 것이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좌지 우지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타협하게 한다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두 번째로 놓도록 우선 순위를 혼동시킬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3]라는 말에서 ‘나 외에는’의 구절은 히브리말로 앞에, 다른 것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또는 어떤 것 위에 ‘더’라는 의미의 ‘알-파 나이’에서 연유합니다. 그것의 분명한 의미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 어떤 대상물을 만들지도 채택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 계명에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지 말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따라 축복해 주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할 때 옵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 계명을 깨뜨리는 것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황금 송아지

스펜서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금이나 은, 나무, 돌,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를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우상 숭배는 알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국한한다. 어떤 신들은 금속, 나무, 돌,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에게 위안이나 기쁨을 주고 욕구나 욕망, 정열, 소망 등을 채워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전혀 형체가 없다.”

저는 말일성도 몇 명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았습니다. “둘째 계명을 현대에 적용시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제가 받은 것들의 예입니다.

■ “경전은 우리들 마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님께 봉사해야 할 때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시간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새긴 우상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보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첫째가 되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새긴 우상들은 의복, 자동차, 집, 취미와 오락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매일 아침 내가 기도보다 무엇을 입을까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엘마서 1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스스로 마술이나 우상을 즐기며 게으름에 빠졌고.’ 저는 게으름이 우상의 한 형태라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 “돈은 오늘날 사람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우상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자신의 고결함과 정직을 포기하고 그것에 굴복합니다. 머리를 숙일 때 그들은 자신의 원칙들을 접는 것입니다.”

■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인간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칭찬과 명예를 숭배하며 타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명성을 그 무엇보다도 갈망합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와 포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유행하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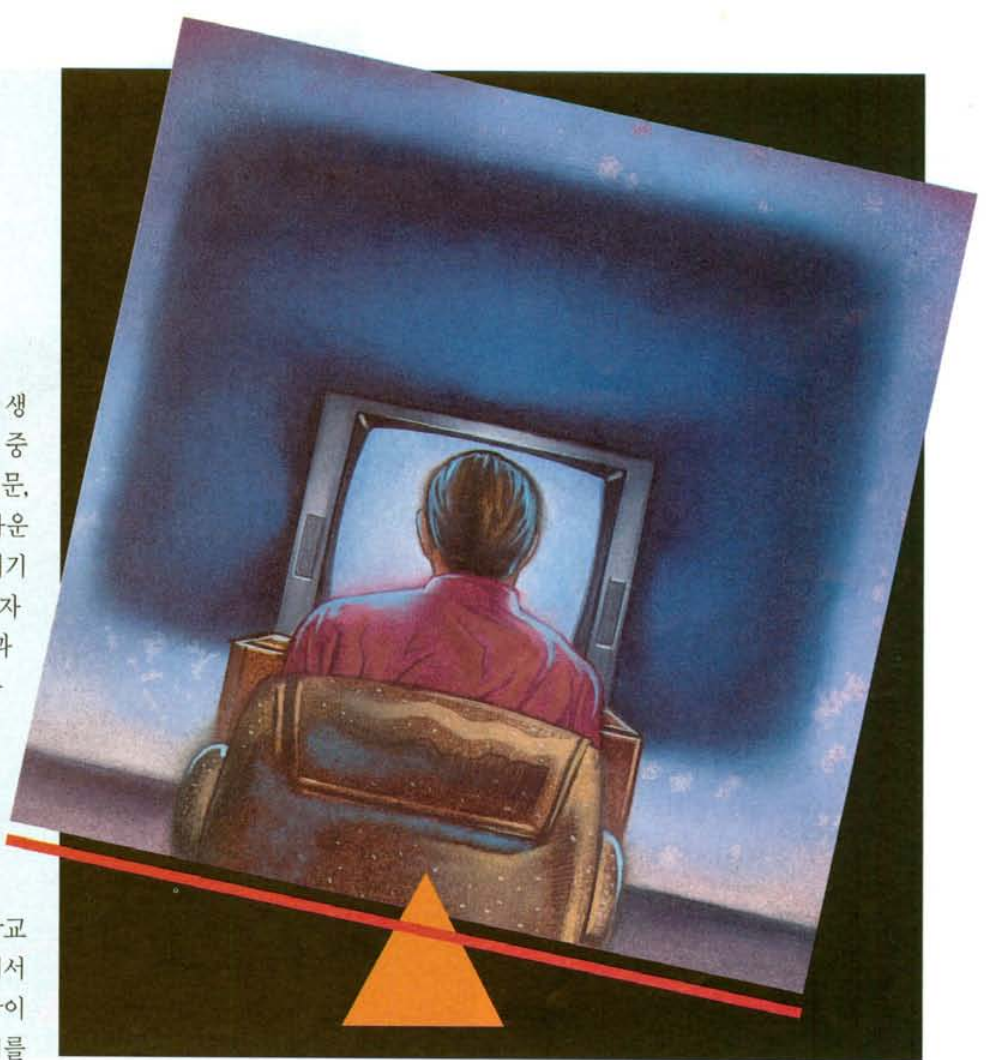
여러 응답자들은 사회가 사람의 겉모습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그것이 우리

를 우상의 한 형태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한 육체가 중요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잡지나 신문, 텔레비전 광고에서 웃고 있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지나칠 정도로 흉내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자주 개인의 행복을 개인의 아름다움과 동등시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상들을 흉내내기에 실패를 거듭하면 서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이 있던 고등학교를 떠나 이사를 했습니다. 새 학교에서는 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랐고 저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속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주목을 받는 여성들은 여위고 예쁜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날씬한 여성들이 잡지의 표지나 큰 광고판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을 살펴본 저는 제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사와서 잃게 된 인기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은 몸이 호리호리하게 보이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킬로그램만 빼겠다고 시도했지만 얼마 후 저는 잡지에서, 남자들이 찾는 여자들의 자격을 토론하고 있는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멋져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말라



세상적인 대상물이나 활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가 세상적인 만족에 지중할 때야말로 우리가 이상 숭배에 빠졌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도 괜찮죠.’ 그 후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남자가 저를 쫓아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마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여전히 인기있는 무리 틈에 끼지 못했으며 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날씬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전 계속해서 다이어트와 운동을 했지만 제가 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5개월간의 굶주림과 우울증 끝에 몸무게가 40킬로그램으로 줄어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았던 것입니다. 체중을 줄인다고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행복이 영적인 성장과 동반하여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인기가 유일한 초점이 될 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할 때만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현대의 황금 송아지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상반되게 받아들일 때 만들어집니다. 알몬 바비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많도다. 보라 저는 내가 명한 조언 곧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조

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조언을 인정하여 주기를 갈망하니, 나의 백성이 예배할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도다.”(교리와 성약 124:84)

예언자와 사도들의 조언을 벗어나는 권유를 따르는 것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겨진 우상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 주시는 진리 밖에서는 어떤 구원의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우상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사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6)

우상 숭배의 결과

고대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성읍은 폐허가 되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레위기 26:30~33 참조) 이스라엘은 조각된 신상들이 “헛 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이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에레미야 10:14~15)라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각된 신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둘로 나누고(호세아 10:2 참조) 우상 숭배자들 스스로를 부패하게(신명기 4:16 참조) 합니다. 이사야는 우상을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사야 41:29)이라고 했습니다.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여전히 혼란과 부패를 낳고 사람들의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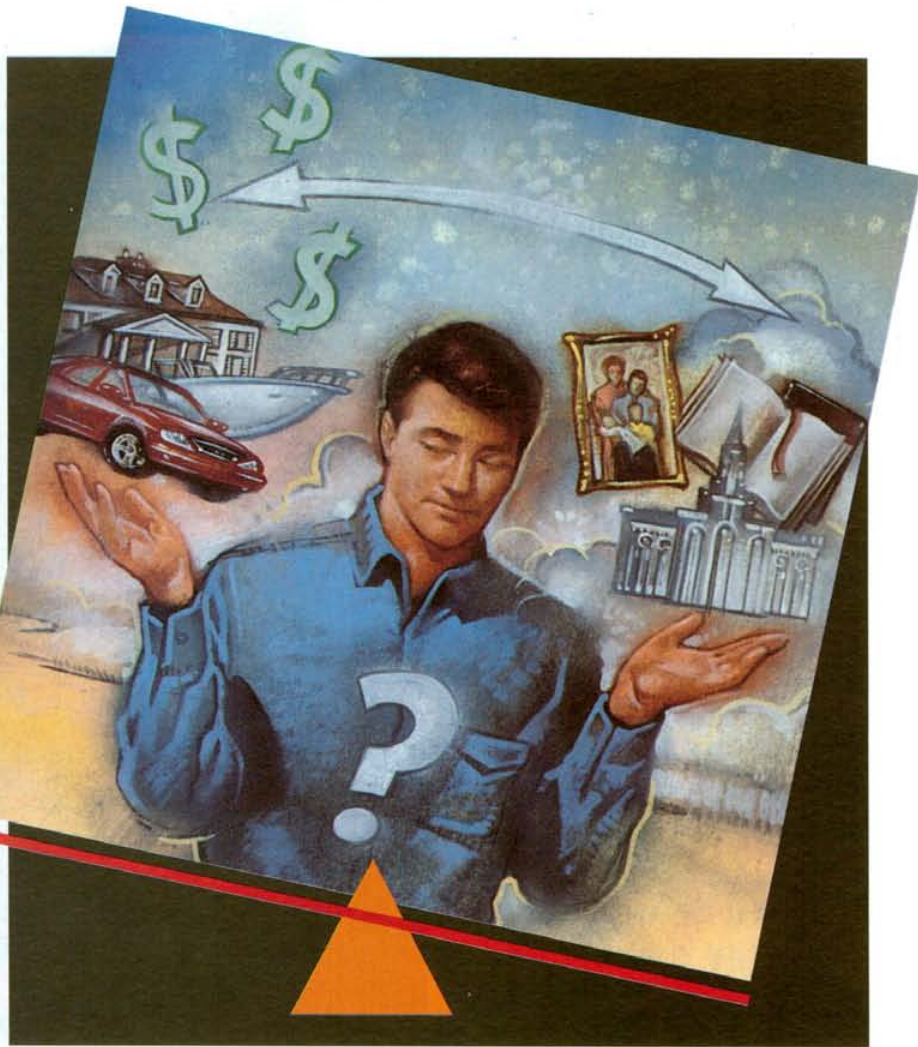
갈라놓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물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왕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다음의 실화들은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먼저 놓을 때 야기되는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천부적인 세일즈맨이었던 제 친구는 일요일을 물건 파는 날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성공을 거두게 되자, 그는 자신의 간증을 잃게 되었어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종교적인 관습이라며 매우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가족에게 영향

을 주었고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한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숭배했고 지금은 그것으로 저주를 받고 있어요.”

■ “제가 아는 한 소년은 몸매를 만드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아주 대단한 근육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몸매를 망칠까봐 두려워서 선교 사업을 가지 않았어요.”

■ “한 여자는 십대 시절에 술과 마약을 주님보다 우선 순위로 놓았어요. 그녀의 강박 관념은 결혼 생활을 망쳐 놓았으며 나중에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지요. 머지않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 모두에 삶의 중심을 두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교회로 돌아왔고 결국에는 성전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한때의 우상 숭배는 자녀들의 생활 방식에 이미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항함

우상 숭배의 영향에 대처하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조화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항상 파도 타기를 했고 그것을 직접 하지 않을 때도 파도 타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수년 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갖게 된 후에 저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유혹이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물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도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바다와, 파도와, 파도 타기를 할 때 느끼는 자유로움에 더 비중을 두기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저의 우선 순위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가 제 생활에 있어서 즐거운 취미 활동이나 가치 있는 운동으로서의 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응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 활동이 반드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해야 할 일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지

만 과도하게 빠져들 때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 활동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교리와 성약 76:79)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둘째 계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세상적인 우상을 우리 생활의 중심에 함께 두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마태복음 6:24)을 둘 다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새물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은사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지킨 자의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여호와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쳤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욱 큰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선조의 축복”(아브라함서 1:2)을 구하길 소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소망은 그를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신봉했기 때문에 신권의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음울한 대조를 이룹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여행 중에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그 곳에 남겨 둔 우상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다봄으로써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19:1~26 참조)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제자 한 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누가복음 9:62)

우리는 하나님과 새긴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야고보서 1:8) 복음을 신봉한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 건너편의 크고 넓은 건물에 비밀리에 예약해 놓지 않고 생명 나무의 열매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니파이일서 8, 11 장 참조)

사탄은 개인의 성공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얻는 우상의 숫자로 헤아려진다고 사탄은 광고합니다. 사탄은 또한 “마지막 날에 만민이 마땅히 구원을 받을 것”(엘마서 1:4)이라는 니히의 믿음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좋으리라”(니파이일서 28:7)는 가르침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단지 변장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현재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이 영원한 부를 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내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감 영은 한 가지 치료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마다 이곳 또는 와드 모임에 함께 모여 서로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

고, 서로를 간곡히 타이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방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일주일에 한번, 두번, 혹은 세 번이라 할지라도 되풀이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우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³

“자주 모여”(교리와 성약 20:75)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중요한 면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가르쳐 주는 긍정적인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일례로 예수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며 “참된 목자”요 “구속주”며 “생명수의 근원”이자 “왕 중 왕”됨을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마음에 심어 주게 됩니다.(니파이서서 9:45; 힐라맨서 15:13; 교리와 성약 18:11; 예레미야 2:13; 디모데전서 6:14~15) 구세주는 구원해 주는 분입니다. 반석은 움직일 수 없는 물체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예배하고 흉내내게 하려는 여러 우상들에 대하여 강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과 겨루도록 용기를 줍니다. 엘마는 제이라헤물라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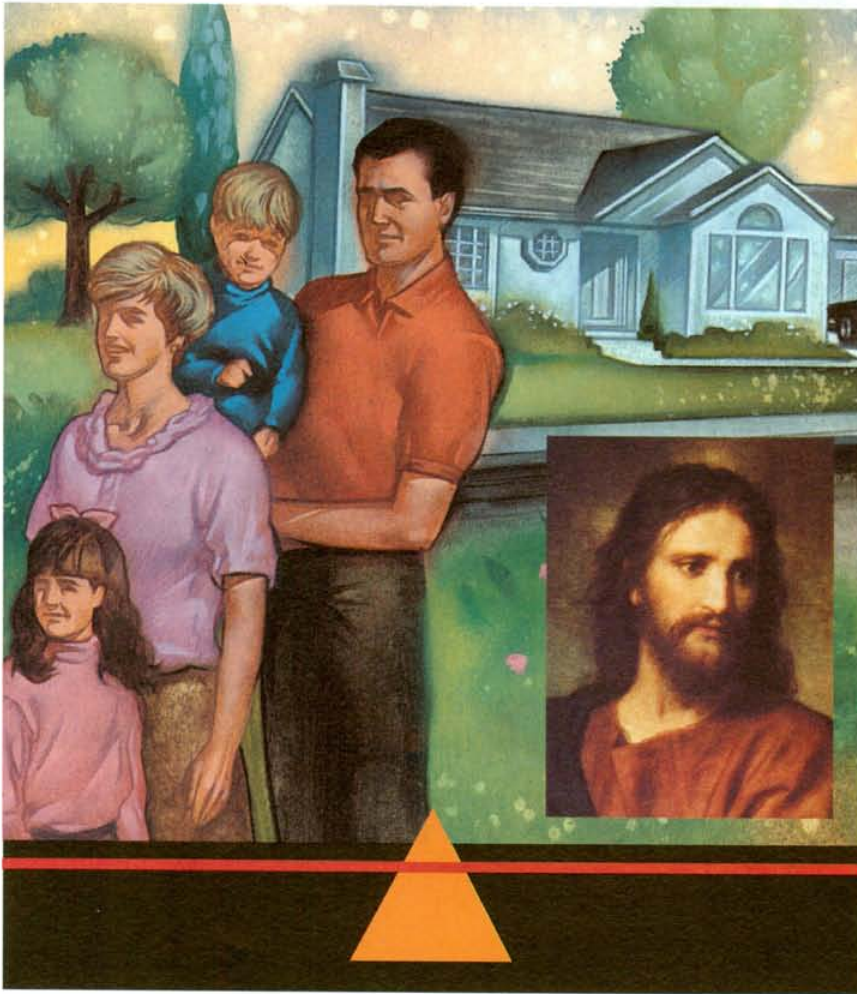
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몸에 지녀 보았느냐?”(엘마서 5:14) 어떤 작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습이란 밖으로 보이는 인상뿐만 아니라 사실적 전시나 생생한 묘사를 통한 전체적 유사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아주 많이 닮은 것으로 배긴 것이나 사본과 같다. 마찬가지로 용모도 단순히 얼굴 표정이나 걸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원래 ‘행위’, ‘행실’, ‘행동’을 의미하는 고대 불어의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옛날에 용모라는 낱말은 이러한 의미들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행동이 구세주와 똑같다는 것이며 주님의 삶을 반영하거나 그대로 답습한다는 의미이다.”⁴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을”(요한일서 3:2) 자들 중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사탄이 그에게 “인간의 아들”이라며 말을 걸었을 때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닮은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모세서 1:12~13)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았으므로 모세는 루시퍼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둥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상속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은 상속권을 포기하고 세상

적인 우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미래에 천국을 상속 받을 자들임을 알고 있으므로 하늘의 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날을 전망해 보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출애굽기 20:5)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카나라는 어휘에 뿌리를 둔 이 히브리말은 ‘열정, 열심, 질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말은 주님께서서 우상에 대해 ‘민감하고 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할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⁵ 이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태도까지도 지시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묵인하지 않았던 구약의 방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며, 거부하고 혐오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출애굽기 34:13; 신명기 7:25~26 참조) 미래의 어느 날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숭배했던 것으로 승영의 축복을 잃게 된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확실히 거부하고 혐오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의 안전한 귀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구세주와 그분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의 독생자의 희생을 치르고 “얻으신 소유물”들입니다.(에베소서 1:14; 고린도전서 6:19~20; 베드로전서 1:18~19 참조)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신명기 7: 6 참조)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을 따랐던 자들에게 승영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황금 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이나 물질적 축복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 것들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둘째 계명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마음 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처럼 파멸”(교리와 성약 1: 16)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고 집에서 자녀들을 거의 도와주하지 않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주님과 상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돈 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이 얻기 위해 모든 시간과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돈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바뀌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가족은 자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더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모두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곧 아버지가 주님께로 돌아선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한 율법사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예수님은 십계명 중 둘째 계명을 지키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마태복음 22:36~38) □

주

1. 디 켈리 옥든, *구약, 종교 301* (1992년 자습 학생 공과), 149쪽
2. 용서가 낳는 기적 (1969년), 44쪽
3.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영*(1997년), 146~147쪽
4. 앤드류 시 스키너, *경전 연구, 제7권, 니파이일서에서 엘마서 29장까지*, 켄트 피 제슨 편집 (1987), 301쪽
5. 구약: *창세기~사무엘하, 종교 301* (1981년 교회 교육 기구 공과), 128쪽



그림: 스티브 그레어

교사를 위한 여섯가지 제언

케리 제인 후토

저는 청소년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훌륭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바를 인상적이고 고무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나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다음의 여섯가지 제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열의를 보임.** 제 자신이 주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가르칠 때에도 확신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매공과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잘 준비합니다.

■ **간증을 키움.** 한 주일 동안 복음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행할 때 얻은 경험은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공과를 가르칠 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나눌 때 저의 반원들은 그들의 생활에 복음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 **주님의 인도를 구함.** 주일 공과를 가르친 후에는 다음 주 공과를 읽고 깊이 연구합니다. 그 주 내내 공과 개념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영감과 인도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려는 노력은 제 자신의 영감과 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 **흥미 있게 공과를 가르침.**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저는 교회 잡지에 있는 공과의 요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토론과 공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층의 학생들에게 성구나 이야기나 생각들을 읽거나 준비해 오도록 지명을 합니다. 매공과를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시키며, 토론 중 주제와 관련된 반원들의 이야기나 실례들을 나누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들을 파악함.** 학생들과 더욱 친숙하게 되기 위해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떤 특정 개인을 돕는 방법으로 제 공과를 맞출 수 있습니다.

■ **간증을 나눔.** 영은 진리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있으므로 간증을 나눔으로써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의 끝이나 공과 중에도 간증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내 말을 연구하라

구 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누가복음 4:4)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니파이이서 32:3)고 권고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것은 잔치상에서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경전을 즐긴다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경전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비추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니파이일서 19:23) 우리의 가르침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우리의 선교 사업에서 특히 물문경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

즐긴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것은 경전 공부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약속이 있는 원리

예언자들은 경전을 즐기는 자들에게 오는 많은 축복을 약속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물문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는 더욱 큰 힘을 찾을 수 있고,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되

고 우리의 성약과 간증에 충실하게 남게 되는 힘을 찾게 된다고 말씀했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쪽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도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경전에 들어 있는 개념들을 지키는 자들은 올바르게 진실하고 덕있는 자가 될 것이며 국내나 국외에서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남자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며 여자는 최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순종할 것이며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가르침[1997년], 119~120쪽)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도 가족이 물문경을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이 되다고 말씀했다. “경전의 영이 커지며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다투는 영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비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되어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성

도의 벗, 1980년 11월호, 97쪽)

세 살이 안된 자녀 셋 때문에 다이어나 호프만은 경전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전 공부를 먼저하기로 결정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이 잠들었을 동안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녀는 더욱 더 강해지고, 필요한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신이 늘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자녀들에게 더욱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었으며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을 느끼며 세상에 많은 축복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저는 우선 순위를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제가 성취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엔사인, 1996년 1월, 11쪽)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줄 모든 말씀을”(교리와 성약 11:22)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경전을 어떻게 더 잘 이용하겠는가?

• 경전 공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



잊을 수 없는

친구

카산드라 린 차이



그 때는 제 생애에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타이완의 집을 떠나 유타 주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무척 보고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른 문화에 완전히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리는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걸어서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어 보고 속이 비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허전한 마음으로 조용히 계단을 올라 제 방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막 그 순간에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자신을 테머러 비어드라 소개하고 저의 방문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동반자인 그리어지와 함께 저를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학생이고 바쁘기는 마찬가지여서 나를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 주리라고 기대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내어 주었고 그 계기로 테머러와의 잇을 수 없는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머러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그녀는 “부드러운 눈을 가진”(창세기 29:17) 구약의 레아를 연상시켰습니다. 첫 방문 때부터 그녀와 그리어지는 저와 친숙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제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어떤 때는 훌륭한 인용문이나 사탕봉지나 생일카드 같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테머러의 발걸음이 좀 불안정해 보여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병이 난 것 같아.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러나 상호부조회 회장은 테머러가 신경 계통의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그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오느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은 저는 “린 있어요?”라는 이상한 컴퓨터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전 처음에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장난 전화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린, 안녕. 난 테머러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리어지가 테머러는 병 때문에 기계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테머러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와의 연락을 끊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에는 특수 타자기에 메시지를 쳐서 전화 교환원에게 전송을 하고, 교환원이 그 메시지를 받아 제게 전화를 해서 읽게 해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테머러는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주일에 한번씩 그녀는 성전에 갔으며 우리는 종종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거기서 얻은 평안으로 우리는 둘 다 축복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녀는 건디기 힘든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이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그녀를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저를 더욱 걱정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도 시련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미소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랜 금식 기도 후에 저는 타이완의 집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테머러는 작별 인사를 하며 슬퍼했지만 제가 영의 속삭임에 따라 필요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테머러를 떠올리면 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끌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그녀의 병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녀를 시장이나 성전에 데려다 주거나 그녀 집에 들르고 방문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나나 모든 이가 그녀에게 그토록 헌신하게 만들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거나 불평을 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방문 교사로 친구로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에 서라도 남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테머러 비어드 두리는 결혼하여 현재 유타 주 로간에 살고 있다.

우리의 세 아이 중 첫째인 마르타가 태어난 직후, 아내인 메르세데스와 나는 피아노를 한 대 구입했다. 우리는 마르타가 뛰어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자신의 외할아버지와 같은 음악적 재능을 갖기를 바랐다. 나는 특히 딸 아이가 교회 회중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다. 나는 딸 아이의 반주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음악적 재능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피아노가 우리 거실의 장식용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 지 몇 해가 흘렀다. 어느 날 장인 어른이 악보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장인은 장차 언젠가는 내가 간단한 곡들을 몇 개 정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저 농담하시는 것이라고, 그것도 별로 재미 있지 않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음악적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인 어른에게서 악보 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나는 그 음악 공부에 즐겁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약 6개월 후에는 음악 공부를 그만두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배운 내용마저도 잊어버렸다.

1983년 마르타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딸아이가 음악 공부

주님께 바치는 기도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그림: 케스 러슨, 사진 촬영: 리카르도 게르신의 아란즈



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마르타는 나보다 더 그 음악 공부를 싫어했다. 우리는 한달치 강습료를 이미 냈기 때문에 남은 수업을 내가 받기로 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랐으며, 한달이 지난 뒤에도 혼자서 계속 연습해 나갔다. 나의 발전 속도는 느렸지만 성탄절 기간이 올 때까지 여섯 곡의 찬송가를 칠 수 있었다.

성탄절 휴가 동안 감독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 나는 "그 어리신 예수"(찬송가 131장)를 연주했다. 그리고 그 분에게 함께 노래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번씩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캐롤을 마침내 끝낼 수 있었다. 감독님은 내게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성찬 찬송도 배우라고 하셨다. 나는 아주 충실하게 연습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연습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서 내 자신의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서 반

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한번은 연습하고 있는데, 내가 치고 있는 찬송가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나는 넘치는 감정에 휩싸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연습해 나갔다. 어느 일요일, 연습을 하기 위해 교회로 일찍 갔다. 예배당이 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감독님께서 앞으로 걸어 오셨다. 감독님께서 계속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은 내가 교회 모임에서 반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나는 와드의 반주자로 성별되었다.

그 즈음에도 연습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나는 내가 그렇게 빨리 찬송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나 성신의 도움이 있

었기에 그렇게 더욱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부름을 위해서 나를 조금씩 조금씩 준비시켜 주셨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도 피아노를 치면서 큰 기쁨을 느낀다. 나는 내가 지부장으로 있는 마드리드 제3지부 신권회에서 반주를 한다. 딸아이인 마르타 역시 음악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지부의 반주자로 봉사했다. 딸은 이제 결혼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다.

피아노를 치면서 가끔씩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고리와 성약 25:12) 내가 소망을 갖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교회의 찬송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것은 진실로 주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개척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안이 얼마나 여러 세대 동안 교회에 속해왔는지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종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에서 교회의 개척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

이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구의 모든 국가에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 온 신앙과 간증을 가진 훌륭한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충실하게 교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회원이든 단 몇 주밖에 안된 회원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개척자들에게 우리의 가족이든 아니든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방관자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존립이나 제대로 하겠는지 의심하던 때에 그들은 교회를 건설하고 예언자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개척자 조상들과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단지 친척들의 인내심과 신앙에 감탄하여 단지 흥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그들의 감격한 마음을 너그럽게 보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자 이야기들이 영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척자 친척들이 했던 것, 즉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기를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한, 개척자들과 친척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진리를 발견하여 이 복음에 개종한 개종자로서, 형제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결코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형제님이 진리를 깨달았듯이, 형제님의 가족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 생활을 하는 가정 전통을 갖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형제님은 형제님 자신의 가정에서 그러한 전통과 습관을 시작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님의 훌륭한 모범은 형제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도 축복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형제님의 가족이 기억하고 감탄할 사랑 받는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이 교회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그들의 생애의 훌륭한 모범으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형제님이 그들의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이 누구이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골몬서 9:27 참조)

독자들의 대답:

저는 스물세 살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여러 세대 동안 우리 가족이 교회에 속해 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며, 우리 각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똑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미콜리,
타란토 지부,
이탈리아 푸글리아 지방부

교회의 초기 개척자들과 친척 관계가 된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거나 비회원 친구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시대에 개척자가 되는 것도 똑같이 좋은 일입니다.



라이즈 벨로스 알부케르크
사코 드스 리미에 와드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스테이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기꺼이 받아들인 복음, 성신의 인도, 살아 계신 예언자, 교회 프



로그램, 특별히 우리의 시대에 회복하신 진리 등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내내 제가 개척자가 될 수 있게 해준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부딪쳤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는 그분의 위대한 계명을 기억함으로써 이러한 도전들을 충족시켰습니다.



라이라니 티 운탈란 자매
필리핀 세부 선교부

저의 개척자 선조들의 희생의 덕택으로 제가 누리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과 풍요로운 축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가 그들의 신앙의 상속자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분들이 시작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어떠한 찬사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저의 개척자 선조들의 발자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올 것입니다.



타히레 아피아펠렐리아
포아
리아호나 와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워터뷰 스테이크

개척자 친척들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종자이고 우리 가족 중에 개척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차메인 에바 엔 오로라
프란시스코 홈즈 지부,
필리핀 케손 시 선교부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개척자들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도이 바리오스 장로,
칠레 산티아고 북 선교부

앞서 간 세대들의 영적인 경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지고 우리의 선조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강해지도록 만듭시다.

실비에 카
레임스 워드
프랑스 파리 동 스테이크

저의 할머니는 35년 여 전에 우리의 지역에서 최초의 회원이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해서 자랑할 이유는 못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복음대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오래 혹은 몇 세대 동안 교회의 회원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소망이 중요합니다.



엘라이네 고날베스
드 소우자
이타자이 제1지부,
브라질 발레 두 이타하이
지방부

개척자와 친척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복음, 그들의 사업, 그들의 특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더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많은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공의로 우신 하나님의 양갈음을 자초하리라"는 것을 교리와 성약 3편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실리아 마필래 랑기 페호코,
하올라 제6워드,
하와이 라이에 스테이크

이곳 회원들 대부분이 개종자인데, 그들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강하고 충실한 회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님이 신앙과 교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미 청
베독 워드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테이크

저는 저의 가족 중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겨우 열 살 때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굳건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지금은 저의 부모님과 할머니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 특히 자신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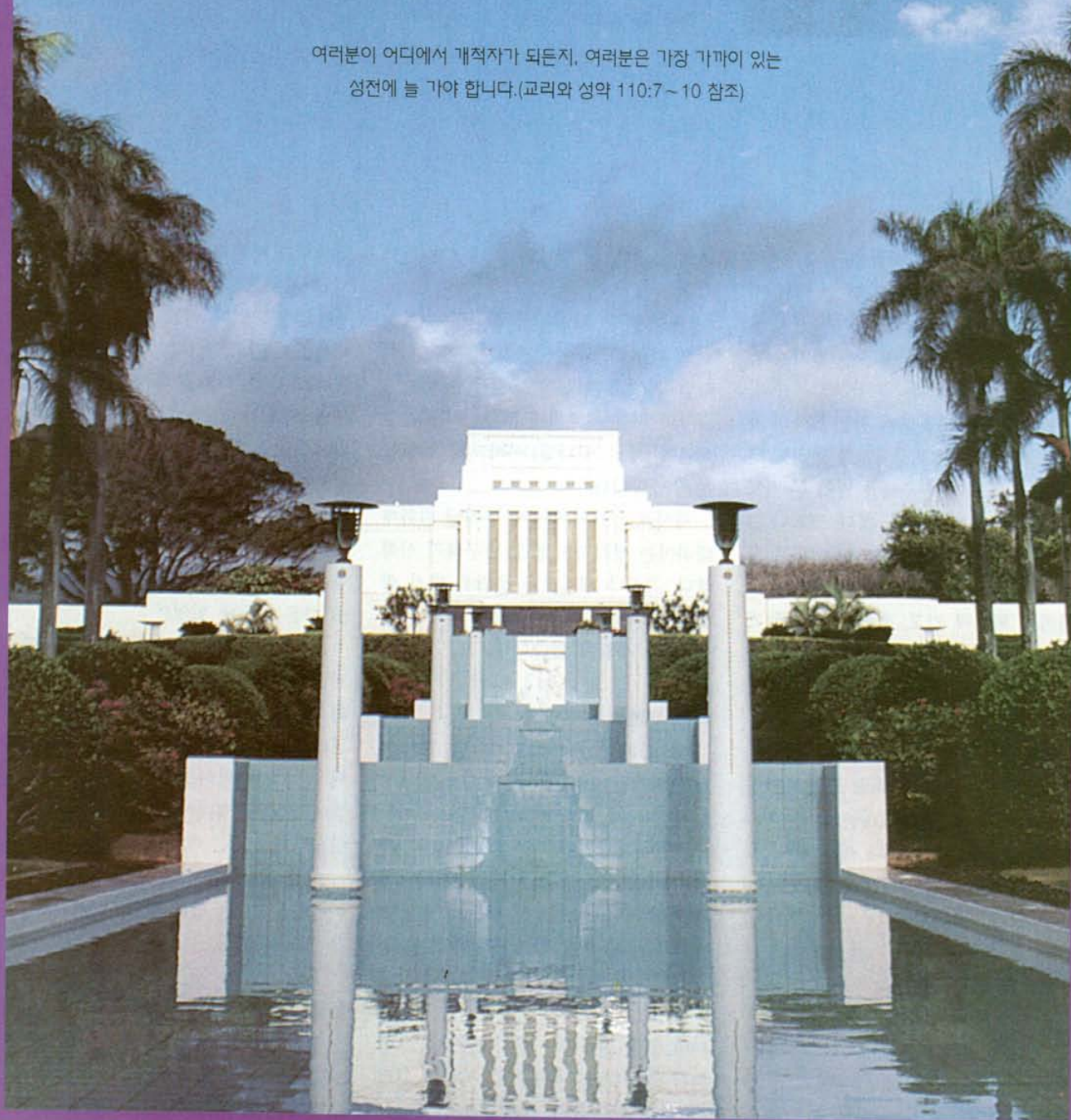
완디손 데 오 지 모레이라
구아루스 제1워드
브라질 캄포스 지방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내주시면 질의 응답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1998년 5월 1일까지 도착하도록 다음의 주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3223,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워드와 스테이크(지부와 지방부)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국어로 썼을 경우에는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이것을 되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우리는 합당치 못할 때 성찬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합당치 못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려워서 어쨌든 성찬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 곳이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개척자가 되든지,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에 늘 가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10:7~10 참조)





자신의 두 발로

리사 엠 그로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개척자에 대해 생각할 때, 150년 전 미국 서부로 가는 긴 노정-오래 걸어서 생긴 물집, 극도의 피로, 동상에 걸린 발가락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사는 15세의 세사르 가스파르는 포장마차를 한번도 타본 적이 없으며, 손수레를 밀어 본 적도 없고, 미국에 가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는 걷는 것에 대해서라면 다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걸어서 세미나리에 가고, 걸어서 학교에 가고, 걸어서 교회에 가고, 걸어서 활동 모임에 가고 걸어서 집에 돌아 온다. 걷는 것은 세사르의 생활에서 부단히 계속되는 일입니다.

“때때로 저는 그 일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라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불평하는 말은 아니다. 정말 그렇다. 그러나 이 청년이 초기 개척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걷는 것 만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가는 발걸음

세사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참된 복음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다른 종교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복된 복

음으로 그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을 읽고 나서, '만약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저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저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세사르는 그의 인생에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사르가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

세사르의 성은 가스파르이다. 그가 다니는 중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한 알파벳 순서 좌석 배치도에 그의 이름이 베티 가르시아 다음에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옆 자리에 앉게 되었으므로 친구가 되었고, 때때로 방과 후에 함께 공부하였다.

“어느 날 베티가 자신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호기심이 생겨서 그 아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지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세사르는 말한다.

곧 세사르는 더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 끝난 뒤 세사르는 집으로 가는 베티의 오빠 뒤를 따라갔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는데, 베티의 가족이 세사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베티와 그녀의 가족은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에게 가르시아 가족의 집을 찾아야겠다는 소망을 준 첫째 이유는 또 다른 이름에 있었다.

“제가 교회에 대하여 처음 배웠을 때,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매우 영적이고 좋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내 세사르는 가르시아 가족에게서 물몬경을 한 권 선물 받았고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들을 만남

성찬식에 처음 참석했을 때 세사르는 매우 생소한 느낌을 받았다. 그 모임은 그에게 익숙해 있던 모임들과는 다른



왼쪽의 세사르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의 거리를 자주 걸어다니는데, 그 거리들은 아래쪽의 도자기들을 따는 행상들로 분주하다. 그러나 세사르가 걸어서 가기를 가장 좋아하는 곳은 맨 왼쪽의 세미나리 교사의 집인데, 그 곳에서 그는 경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이크를 수리하고 있던 분이 감독이라는 말에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세 시간 동안이나 앉아있는 것도 한 가지 변화였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참석했던 주일학교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이 끝난 후에, 베티의 오빠인 아이작이 저에게 선교사를 찾아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권회에 가지 않고, 선교사들과 첫번째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에 이어 주 중에도 토론을 가졌다. 목요일에 감독과 접견하였으며, 일요일 모임에 처음 참석한 지 꼭 일주일

후인 일요일에 세사르는 침례 받았다.

“꽤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저는 물론경을 거의 다 읽은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 토론을 하기 전에, 저는 또한 구원의 교리, 회복된 진리, 용서가 낳는 기적도 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다. 세사르는 그의 가족 가운데서 유일한 회원이다. 그는 거의 항상 걸어서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끔 원하기만 하면 교회에 빠지거나 세미나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저는 저의 가족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행동하는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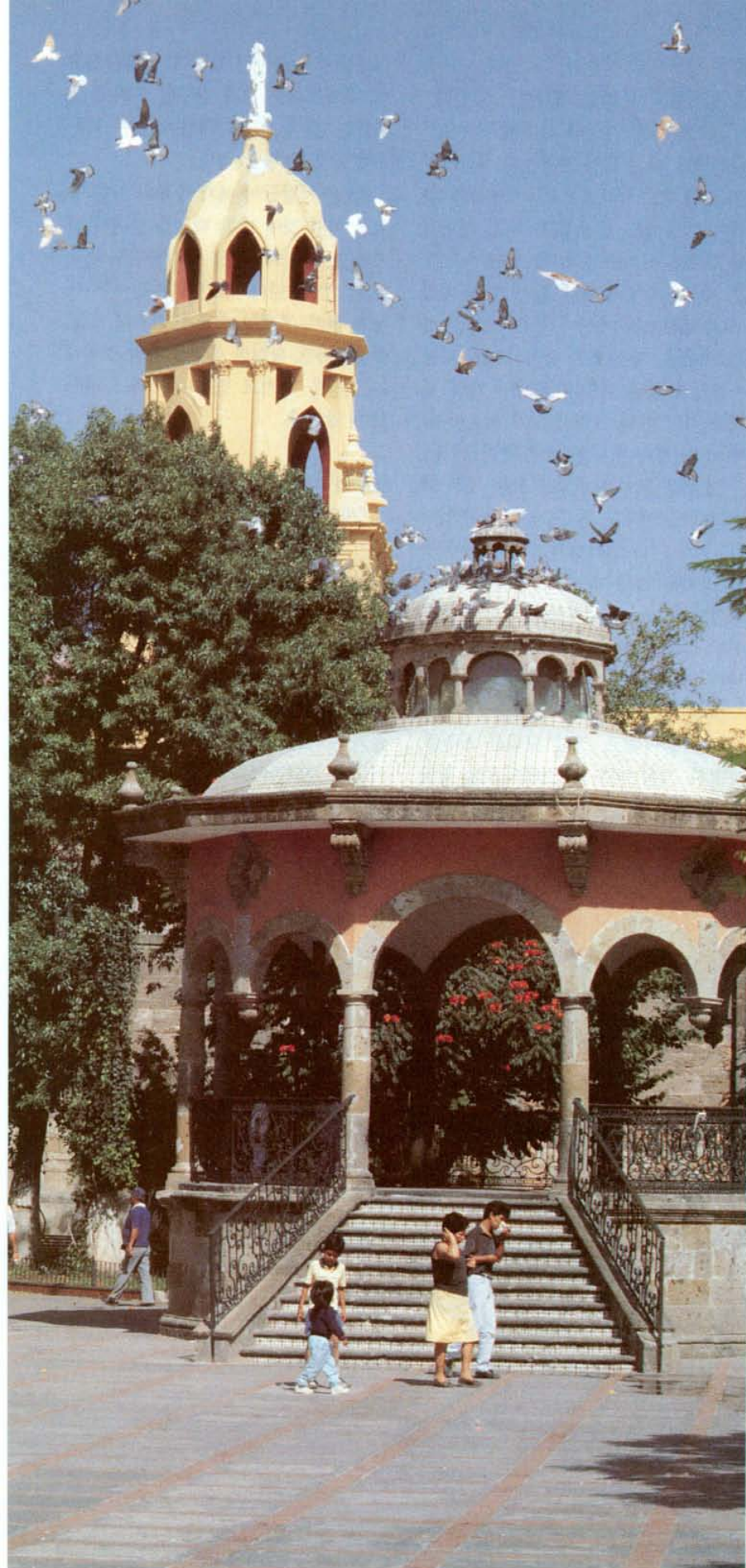
다른 개종자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교

것이였다.

“성찬기를 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고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잘

과달라하라의 변화한 대광장(맨 오른쪽)은 미국 서부의 황량한 평원과는 매우 다르겠지만 세사르의 주일학교 교사, 도리스 곤잘레스(오른쪽)와 같은 친구들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세사르는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개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회에 가입하는 것이 세사르에게도 큰 변화가 될 수 있다. 세사르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원리를 배우는 장소 이상의 곳입니다.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키기, 매일 식사 기도하기, 밤낮으로 기도하기,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등 그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 밖에 혼자 경전 공부를 하고, 교회에 가기 위해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등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세사르는 그러한 변화에 적응되어 편안해진 것 같다.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과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가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교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하는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복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세사르가 태어날 때부터 회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는 빨리 배우며 진리를 알려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사르는 자신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느낌 이상의 어떤 것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물문경을 읽고 있었을 때, 저는 미대륙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었고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성신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매우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의 생활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세사르는 말한다.

그러한 강한 자극이 담대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세사르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비결이다. 세사르는 자신이 복음 생활을 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개인 일지를 적고 있다. 그것은 그가 힘들어 할 때 영을 계속 지니는 데 도움이 된다.

“모범을 보이고 일지를 쓰는 것은 제가 유산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에 저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저의 일지를 읽을 때, 가족 중 유일한 말 일성도가 되어 생활한다는 것이 조금도 쉽지 않으며,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가 스테이크 선교사 부름을 좋아했고, 그가 교회의 회원들, 특별히 그의 와드와 스테이크의 청년

청녀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등, 그에 대하여 많은 다른 것들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종교와 같은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한 해답을 알거나 받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에 상관 없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질문한다면, 확실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세사르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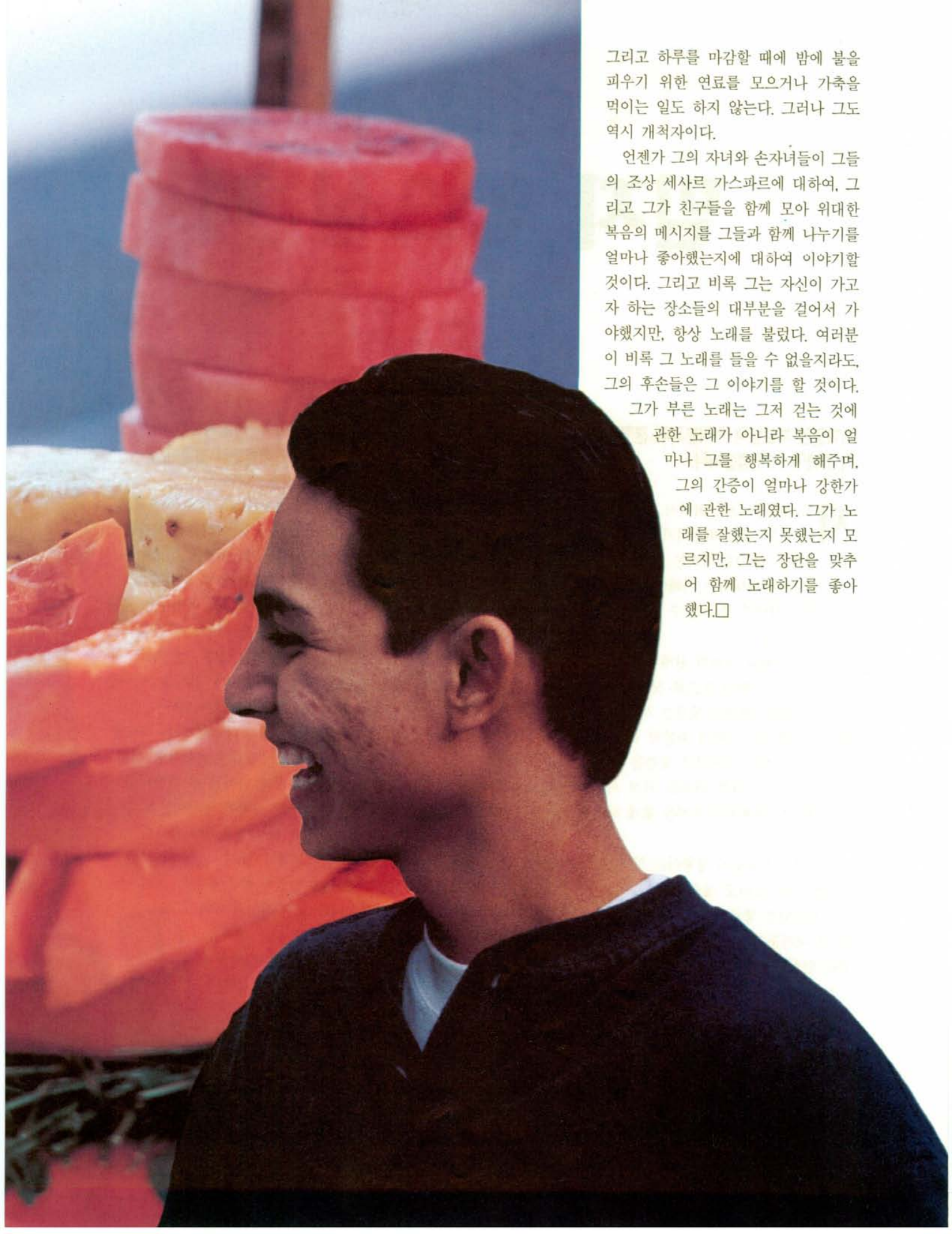
노래와 미소

“개척자 어린이들은 걸을 때 노래했다.”(“개척자 어린이”, 어린이 노래책, 141쪽)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른 적이 없지만, 세사르는 그러한 가사를 들을 때, 미소를 지으며 “저건 내 노래야! 나는 무진장 걷거든”이라고 말한다.

물론 세사르는 옛날의 개척자 어린이들과는 다르다. 세사르는 황량한 광야가 아니라 과달라야라의 변화가를 걷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달콤한 과실을 과달라야라의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위) 이제, 베티 가르시아로 인해서 세사르는 복음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다.(오른쪽)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밤에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를 모으거나 가축을 먹이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도 역시 개척자이다.

언젠가 그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그들의 조상 세사르 가스파르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친구들을 함께 모아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장소들의 대부분을 걸어서 가야했지만, 항상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이 비록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저 걷는 것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그를 행복하게 해주며, 그의 간증이 얼마나 강함가에 관한 노래였다. 그가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장단을 맞추어 함께 노래하기를 좋아했다.□

아빠가 믿지 않으실 때

익명

그림: 그레그 뉴볼드

비회원인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엄마와 저희 남매들은 모두 활동 회원이기 때문에, 가끔 아빠와 의견 충돌이 생기곤 합니다. 아빠는 제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반대하는 아빠에게 화를 자주 냈기 때문에 평생 아빠와 사이가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시려고 무척 애쓰셨는데, 제가 아빠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니?” 엄마는 저에게 차분히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더욱 인내심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아빠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회원인 부모님과 생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된 점 몇 가지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1. 부모님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왜 여러분이 따르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2. 어떠한 인간 관계에서든, 특히 부모님과 관계에서는 존경심이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분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또한 계명임을 기억하십시오.
3. 2번에서 말한 규칙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릇없이 굴지 말고, 여러분이 무

엇을, 왜 믿는지를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과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4.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그 분들의 자녀이고, 그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면, 감정이 부드럽게 되고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5.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 부모님, 고문, 감독님은 여러분을 늘 곁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 또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힘들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는 항상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상의 아버지께서 비록 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교회에 들어 오시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아빠도 알고 계십니다. □





창조의 기간

경전에는 창조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옛세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의 개념은 창조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옛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토마스 알 벨레타의 대답

일부 성경의 독자들은 지구의 창조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옛세 걸렸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조가 6,000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로서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베드로후서 3:8)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일성도는 창조의 각 날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아니며 지구의 창조는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제3의 견해를 인정하는 지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라는 말은 시간과 동의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서 4장 8절은 “이는 그들이 낮과 밤이라 칭하신 두 번째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두 번째 창조의 기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용법은 고대 히브리어의 용법과 일치합니다. 종종 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YOM이라는 말은 “시간” 혹은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날로 번역된 그 용어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수고가 수행되는 데 걸린 기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날은 일반적으로 수고가 끝나는 밤, 혹은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구세주께서는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9:4; 요한

복음 11:9~10 참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골몬경에도 이 고대 용법이 있습니다. 엘마서 34장 32~33절에서 앰올레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애가 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애를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다가 오느니라.”

이 구절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변하는 길이의 기간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조에 걸린 여섯 날의 각 날이 같은 기간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계시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엔사인, 1982년 6월, 11쪽)

창조의 기사는 창조의 방법과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보다 가치있는 접근 방법은 이 기사들을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과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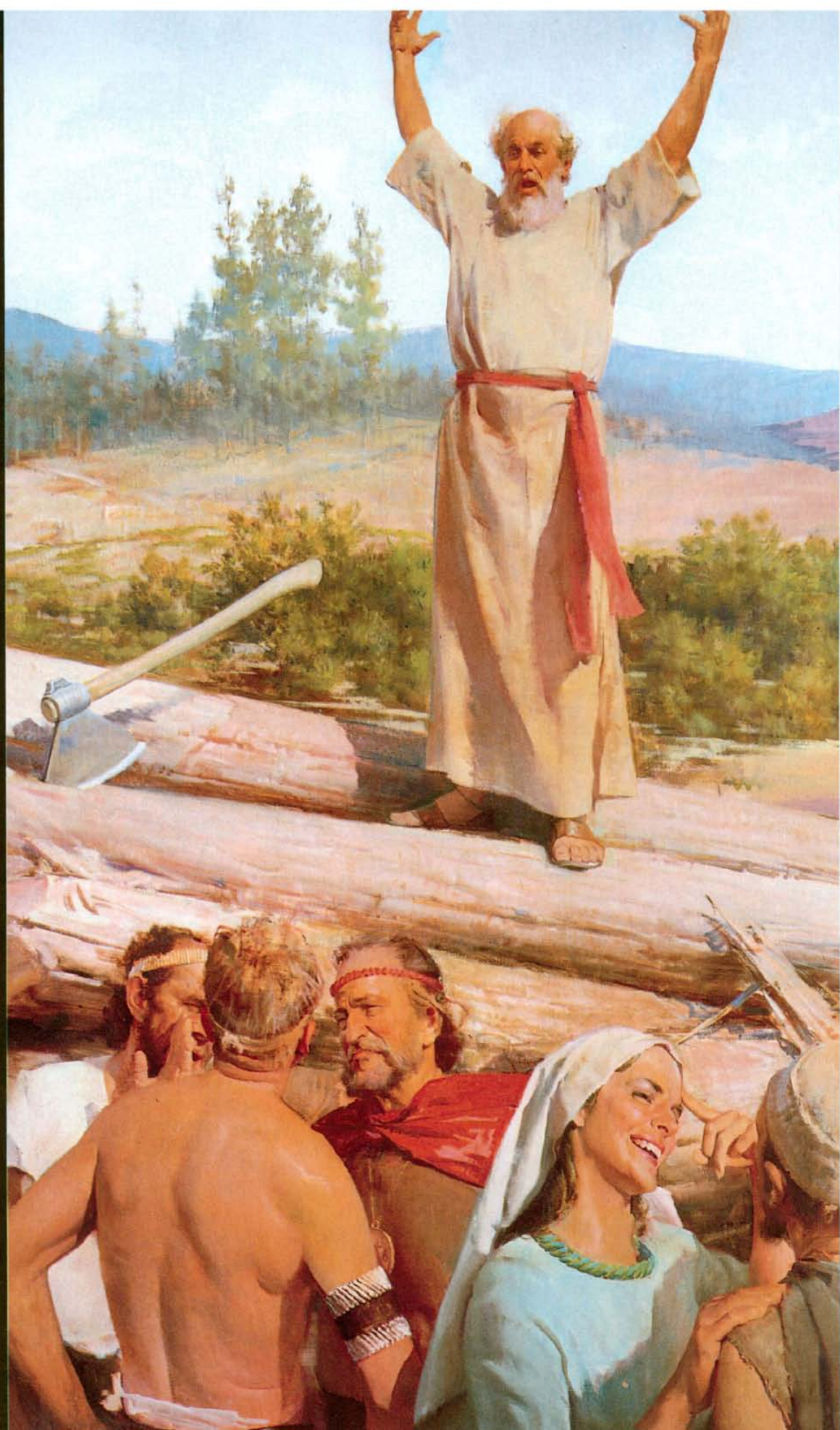
대답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이해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조의 방법과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보다 가치있는 접근 방법은
이 기사들을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과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니파이이서 2장 21 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들이 세상에 살
날이 길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회개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대 축복사의 수명

므두셀라는 969세에 죽었고(창세기 5:27 참조), 노아는 950세에 죽었고(창세기 9:29 참조),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창세기 5:5 참조) 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과 또 다른 고대 축복사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토마스 알 벨레타의 대답

이 유를 대답하기 전에 세 가지 점을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대의 계시는 많은 구약 시대의 축복사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다는 경전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모세서 8:1~13; 교리와 성약 107:41~53 참조) 둘째,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예언자들은 이러한 경전의 기록을 글자의 뜻 그대로 이해하였습니다.(설교집, 브리감 영, 12:37; 대관장단 메시지, 윌포드 우드럽, 제임즈 알 클라크 편집, 제6권 [1965~1975], 3:253 참조) 셋째, 초기 역사가들은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의 역사가 조세퍼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들의 수명과 우리의 수명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몇 년과 비교하면서,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짓이거나 현재의 우리의 수명이 짧다는 것으로 아무도 그렇게 긴 수명을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고대 유대인, 제1권, 제3장, 제9단락)

이 질문이 경전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니파이이서 2장 21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들이 세상에 살 날이 길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회개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시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대인들이 유덕했고 천문학적인 발견과 기하학적인 발견을 그들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수를 주셨다고 조세퍼스는 주장했는데, 그들이 600년을 살지 못했다면 [별의 주기]를 예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고대 유대인, 제1권, 제3장, 제9단락)

브리감 영 대관장 역시 축복사들의 장수를 그들의 “생명

의 법칙”에 대한 순종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초기 성도들에게 “인류의 장수가 다시 가능해지도록...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동료들의 생활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향상시키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를 그치라고 촉구했습니다.(설교집, 14:89) 물론경의 한 구절은 주님이 의로운 사람들의 날들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합니다.(헬라만서 7:24)

또 다른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이 노아의 홍수 때에 급격히 변화했는지 모르며 그 후 곧 이것이 수명의 감소 원인이 되었다고 말해 왔습니다.(모세서 8:17 참조)

고대 축복사들에게 긴 수명을 주신 또 다른 있을 수 있는 목적 중에는 그분이 만드신 증인의 법을 통해서 진리를 확립할 필요성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강화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세상에 주어진 방법 뿐만 아니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보존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전달될 때부터 의인들의 마음에 간직되었는데, 그 의인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 이후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는 그들에게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첫번째 지식과 개념을 알려 주기 위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계시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요셉 스미스, 편집자 [1985], 20쪽)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있을 수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것들은 상호간에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능성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

대답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이해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탑

창세기의 내용에 따르면, 바벨탑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은 역사에서 중대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에 관한 지식과 견해가 더 있습니까?



리 도널드슨, 브이 덴 로저스와 데이비드 롤프 실리의 대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후에 바빌론이라고 불려진 바벨 왕국을 발견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던더라...”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1절, 4절)

주님께서 그 도시를 보러 내려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흠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5~9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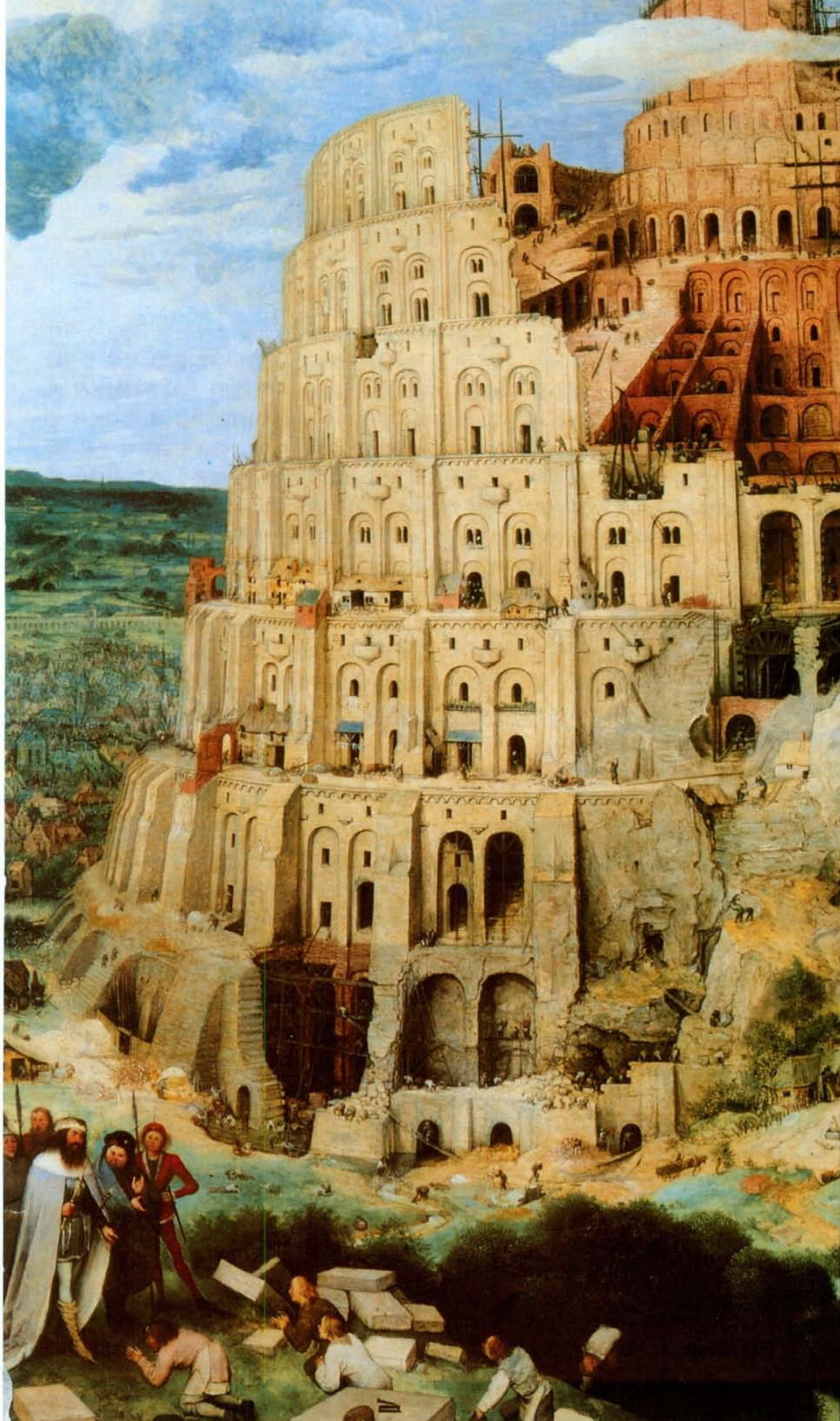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전설은 니므롯이 하늘에 닿기 위한 시도로, 이교도의 신전으로 지칭되는 바벨탑을 지었다고 전합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나 찬탈한 권위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칙을 모방하여 지구에 거짓 신권과 거짓 왕권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휴 니블리, *사막의 리하이와 야렛인의 세계*, 휴 니블리 선집 5권 [1980년], 156쪽)

고대 유대의 역사가인 조세퍼스는 부가적인 이해력을 제

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니므롯이 백성들을 지배할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니므롯은 이 가짜 신전이 그의 지배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제1권, 제4장, 제2단락 참조)

그 탑의 건축은 백성들이 가마에 구운 벽돌과 같은 중대한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에 말린 보통 진흙 벽돌은 제한된 높이만 쌓아 올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구워낸 벽돌은 꽤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빌론 신전의 탑은 높이가 91미터입니다. 성경에서, 벽돌은 이 탑과 파라오의 건물들과 우상 숭배 제단과 관련되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3; 출애굽기 1:14, 5:7, 14, 16; 이사야 65:3 참조) 이 벽돌 사용은 노아의 홍수 이래 개발된 사회에서 백성들이 주님에 대해 반항심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탑의 건설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이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한 기동력은 그들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창세기 11:4 참조) 다시 말해서, 니므롯은 영원한 성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신전을 지을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서 읽혀져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비밀 결사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관문; 에녹의
도시가 들리워 올려짐;
노아의 홍수; 주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확립. 바벨탑의 건설은
노아의 경륜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
사이의 과도기적인
사건이었음.

“흠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탑—신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창세기 11:4) 말일의 계시는 인봉의 권세가 재림의 시기에 지구가 황폐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3 참조) 요셉 스미스 시대에 황폐케 된다는 말의 의미의 하나는 “흠어짐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뜻입니다.(웹스터 사전 [1828년]) 마지막으로,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란”을 의미하지만, 바빌로니아어로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문”이었습니다.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은 신의 승인이나 신권의 열쇠없이 그들 자신의 신전과 하늘로 가는 그들의 문을 짓고 있었습니다.

배도한 백성인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전 의식과 신전 목적을 약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상징해 주는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예배 의식을 모방하여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의식을 사용하여, 내세를 위한 준비의 과정을 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에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 “바빌론”으로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서의 용어로 보면, 이 이야기의 백성들은 세상이나 세속을 상징하게 된 도시인 바빌론을 짓고 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6 참조)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의 정황과 관련하여 읽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복음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가인 비밀 결사에서 시작되는 비밀 결사들이 세상에 배도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예녹은 의로운 자들을 시온으로 모았고 그들은 하늘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킨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여파로, 지구에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한 성약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맺어졌습니다.(창세기 9:11; 창세기 9:17, 요셉 스미스 역 참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예녹의 도시가 하늘로 들어 올려졌지만(창세기 5:23~24; 모세서 7:21, 69 참조) 아브라함 시대에(바벨탑의 전반적인 시대), 벨기세덱 또한 예녹의 도시에 합류하여 천국을 얻고자 하는 시온의 백성을 배출한 사회를 만

들었습니다.(창세기 14:33~34, 요셉 스미스 역 참조) 노아의 홍수가 준 충격을 고려하면(창세기 6~8 참조), 방수 물질로 하늘로 가는 탑을 지으려는 염원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지구의 거주자들을 또다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는 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전—탑은 자신들의 눈에 더욱 의미있게 보이면서, 많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회개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피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이러한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의 건설은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 사이의 과도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을 흠으신 직후에 곧바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감으로써 개입하셨습니다.(창세기 12장 참조) 주님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로써 아브라함의 성약을 제정하셨고, 그 성약은 속죄의 피를 우리가 인식하고 속죄의 피를 깨끗이 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들이 성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바빌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약을 깨뜨림으로써 예루살렘(시온)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권세와 자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키로스왕 후에 다리우스왕에 의해 바빌론에서 풀려났습니다. 스룹바벨과 후에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그래서 일부는 돌아와 성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말일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으로부터 떠나가며, 죄 곧 영적인 바빌론에서 떠나가라”(교리와 성약 133:14)라는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

대답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이해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스텐리 게일리,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아담이 그 아내를 이브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짐승의 어미가 됨이라... 나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이니라. *(모세서 4:26~27)



아 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한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세기 22:9~12) 고든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간증한다. “저는 갈보리 언덕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가 악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습니다.”(“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7쪽 참조)

